■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19-154.
http://doi.org/10.17948/kcs.2022..96.119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1 】

『金石集帖』 碑文의 隸書 연구*

유지복(柳志福)**

목 차

1. 머리말
2. 조선 초기 예서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
3. 17세기 비문의 예서
4. 18세기 비문의 예서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비문의 隸書를 대상으로 조선 17·18세기 예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금석집첩』에는 김수증 계열에 속하는 예서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중에는 김수증의 글자를 모아 만든 집자비를 비롯해 김수증의 예서풍을 따른 필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김수증이 17세기 조선에 예서를 흥기시킨 서가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김수증 이후 예서로 두각을 나타낸 명서가로 광산김씨 집안의 김진규·김양택 부자와 김진상을 들 수 있다. 이 중 김진상의 예서는 『금석집첩』에 김수증 다음으로 많이 실려 있다. 그는 김수증의 예서풍을 벗어나 唐隸를 수용하여 18세기 예서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전주대 연구교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특히 김양택은 17세기 예서에서 드러났던 과도기적 습성들을 덜어내고 東漢의 〈조전비〉를 기반으로 격조 있는 예서를 선보였다. 김양택이 조선 서예사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다는 점에서 그의 예서는 18세기 서예사의 중요 지점을 보완하는 가치가 있다.

이 밖에 남유용, 송문흠, 이인상의 예서에서는 동한의 〈하승비〉를 비롯해 〈을영비〉 등의 漢碑를 익힌 흔적이 발견된다. 이는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비의 수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예서 명필 중 대미를 장식하는 서가는 이광사이다. 그는 〈예기비〉를 비롯해 다양한 한비를 익혀 18세기 조선에 동한 예서풍의 전형을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주제어: 書藝, 隸書, 金石集帖, 金壽增, 金鎭商, 金陽澤.

1. 머리말

조선 후기 金在魯家에서 편찬한 『金石集帖』은 현재 일본 京都大學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정편에 해당하는 『금석집첩』과 속편에 해당하는 『金石續帖』을 합해 모두 219책의 거질이다. 수록된 탁본은 1,800여 점으로 현전하는 조선시대 금석문 탁본첩 중 최대의 컬렉션이다.[1)]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은 전서, 예서, 행서, 해서, 초서 등 다양한 서체를 이룬다. 각각의 서체는 기존에 알려진 명필들의 필적이 망라되어 있고, 서예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 명필들의 필적도 상당수에 이른다.

---

1) 『금석집첩』은 박진완의 연구에 의해 그 개략과 수록 탁본목록이 처음 소개되었다(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169-245면). 이후 『금석집첩』의 목록집에 해당하는 『金石錄』을 전체목록과 함께 소개한 연구가 이어졌고(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학회, 2011, 237-302면), 『금석집첩』과 목록집 『금석록』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한 연구가 이어졌다(박철상,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이후 일본 학자 후지모토 유키오에 의해 『금석집첩』의 상세한 목록이 작성되었고(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硏究(史部)』, 동국대출판부, 2018, 1388-1451면), 『금석집첩』과 『금석록』의 구체적인 비교와 함께 『금석집첩』 수록 묘비문의 문체를 분석한 연구가 이어졌다(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최근에는 『금석집첩』 수록 탁본 2,081점에 대한 수정 목록이 작성되었다(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107-135면).

서예사의 주요 연구 대상인 集字碑도 왕희지를 비롯한 중국 역대 명필의 글씨가 수록되어 있고, 한호 등 국내 명서가의 필적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각각의 서체 또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금석집첩』은 한국 서예사 연구를 위한 보고라 할 수 있다.

『금석집첩』의 대다수는 묘비 탁본이다. 따라서 頭篆으로 불리는 碑額 글씨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액은 전서와 해서로 쓴 경우가 대부분이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금석문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篆隸가 성행함에 따라 예서로 쓰는 경우도 많아졌다. 비액뿐만 아니라 음기도 예서로 쓰는 경우가 현저해졌다. 『금석집첩』에는 前面의 비액과 후면의 음기를 포함해 예서 필적이 모두 105점 수록되어 있다(부록 참조). 단일 집첩으로는 가장 많은 예서가 실려 있어 금석문을 통한 조선 후기 예서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매우 효과적이다.

예서가 석비 명문으로 등장한 것은 여말 선초였으나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부터이다.[2] 이후 예서의 사용은 빈번해졌으며 글씨의 풍격도 점차 다양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비문의 예서를 각 시기와 서풍별로 분류하여 시대별 추이와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 초기 예서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

예서는 일반적으로 東漢 시기에 정형화된 서체를 지칭하며 漢隸라고도 한다. 고체자인 篆書의 필획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 八分으로도 불려왔다. 전서가 圓筆의 곡선이 주조를 이루는 것과 달리 예서는 방정한 결구와 율동적인 波勢를 특징으로 한다. 국내 문헌 중 예서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통일신라 때 崔致遠이 唐 昭宗의 조서에 사례한 표문의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唐 玄宗이 신라 성덕왕과 경덕왕에게 팔분으로 쓴 어찰을 여러 차례 주었다는 표현이 있다.[3] 당 현종은 후대에 한예의 고법을 잃고 비후해진 특징으로 대변되는

2) 이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고려 말 1377년에 건립된 〈檜巖寺址禪覺王師碑〉가 權仲和의 예서로 새긴 석비임을 환기시켜준 심사평이 있었다. 세밀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3) 崔致遠, 『孤雲集』 권1, 「謝賜詔書兩函表」, "至如開元御寓 海不揚波 類錫王言 誕敷文德 仍以臣先祖興光 憲英父子但能慕善 累賜八分御札 莫不龍騰鳳翻 綵牋由是益光 神筆至今猶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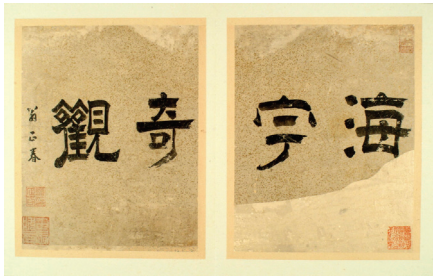
'唐隸'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쇠퇴하던 예서체의 사용을 장려했던 인물이다.[4] 최치원의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팔분이 예서를 뜻하는 용어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초기 국가 기관 중 字學의 임무를 맡고 있던 곳은 校書館이었다. 세종대에는 교서관에서 印信의 체제를 정비하게 하고, 과거합격자로서 교서관에 분관되어 임용 대기중인 관원들로 하여금 상시 출근하여 篆字와 팔분을 익히게 하였다.[5] 교서관에서도 미진한 규정을 더 마련해 자학을 권면하고 장려하기 위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매년 4분기로 나누어 大篆, 小篆, 印篆, 팔분을 쓰는 시험을 치러 3등급으로 나눠 근무 성적을 매기고 이를 고과의 증빙자료로 삼게 하였다. 또한 매달 祿官과 兼官에게 명해 篆字를 쓰게 하고 등급을 매겨 연말 이조에서 시행하는 陞黜의 증빙으로 삼게 하는 등, 비갈·도서·인장에 주로 쓰였던 전서와 함께 팔분도 교서관 관원이 반드시 익혀야 할 글씨로서 구체적 규정이 시행되었다.[6]

安平大君 李瑢이 1442년에 남송 寧宗이 쓴 瀟湘八景詩를 『東書堂古帖』에서 발견한 뒤, 그 시를 베껴 쓰고 瀟湘八景圖를 그리게 하여 八景詩卷을 만든 바 있다. 李永瑞의 서문과 함께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 집현전 학사들이 친필로 쓴 차운시를 함께 실었다. 朴彭年(1417-1456)도 제시를 남겼는데 안평대군이 팔경시권을 제작할 당시의 배경을 아울러 글로 남겼다. 그 내용 말미에는 "중국인 翁正春이 팔분으로 책머리에 '海宇奇觀'이라고 썼다."는 기록이 있다.[7] 현재 이 시권은 『匪懈堂瀟湘八景詩帖』이라는 첩으로 개장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8] 앞면에 명대 문인 옹정춘이 '海宇奇觀'이라고 쓴 글씨가 남아있다(그림 1).

---

4) 이희순, 「朝鮮時代 隸書風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25면.
5) 『세종실록』 권86, 21년(1439) 7월 16일 임술.
6)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1440) 1월 10일 계축.
7) 朴彭年, 『朴先生遺稿』, 「題匪懈堂瀟湘八景詩卷」, "中朝人翁正春 以八分書其首曰海宇奇觀云."
8) 『匪懈堂瀟湘八景詩帖』은 45.3×33.0㎝의 첩으로, 보물 제1405호 지정되어 있다. 도록은 『匪懈堂瀟湘八景詩帖』, 문화재청, 2007 참조.



〈그림 1〉 明 翁正春, 〈海宇奇觀〉, 『匪懈堂瀟湘八景詩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2〉 傳 姜希顔, 〈知敦寧府事姜碩德墓表〉, 1461년, 『金石集帖』 海65.

옹정춘의 글씨는 가로획의 파세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서의 전형적인 획법을 보이고 있다. 조선 초기 문인들이 문헌에서 표현했던 '팔분'이 예서를 지칭하고 있음을 이 글씨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초기 당시에는 팔분이라는 용어가 예서를 대변하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석집첩』에 실린 예서 석비 중 15세기를 대표할 만한 필적은 〈姜碩德墓表〉이다(그림 2). 강석덕은 沈溫의 사위로 세종과는 동서간이다. 안평대군이 제작한 『비해당소상팔경시첩』에 그가 지은 차운시가 있어 강석덕이 시서에 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목이 외가의 묘도문자에 관해 남긴 글에서 강석덕이 전서와 예서에 정통하여 임금의 명으로 昭憲大妃의 墓誌를 썼다고 한 기록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9] 아들 姜希顔과 姜希孟도 모두 서화에 뛰어난 인물로, 강희안 역시 전예와 팔분에 정통하여 사람들이 '三絶'로 추앙하였다고 한다.[10] 강석덕의 묘표에 서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각체에 능했던 강희안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가로획의 긴 파세는 예서의 전형적인 획법을 보인다. 다만 '夫'자에서 오른쪽 아래로 끌어내리는 파임, '公'자의 마름모로 꺾인 획, '墓'자의 왼쪽 사선으로 내리는 삐침 등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금석집첩』에는 강석덕의 묘표 외에도 안평대군이 예서로 쓴 〈沈溫墓表〉(悲194)가 있다.[11] 두 비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15세기의

9) 許穆, 『記言』 권45, 「姜戴敏公遺事」, "文章高古 以淡泊爲宗 精於篆隸 奉敎書昭憲大妃石誌."
10)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1464) 10월 9일 기축.

예서는 대체로 예서의 획법을 잘 지키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과장된 획과 해서에 쓰이는 획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예서가 묘도문자로서 일반적으로 쓰이기 전인 16세기에도 이어지는 요소이다.

李滉(1501-1570)이 宋 劉球가 편찬한 예서 자전『隸韻』을 기반으로 南彦紀(1534-?)의 요구에 호응하여 箴銘 8폭을 써주고 기록한 1555년의 글이 있다.[12] 이를 보면 16세기 당시 문인들이 예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예운』등의 자전을 얻어 글씨를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도산서원에 남긴 〈陶山書堂〉·〈隴雲精舍〉 편액(그림 3)에서 보듯 해서 자형의 기반에 예서 필획이 부분적으로 가미된 수준에 머물러 16세기까지도 예서를 수용하는 자세와 인식의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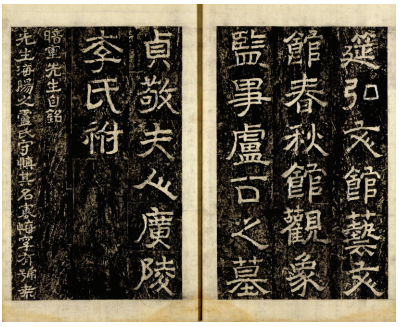
『금석집첩』에서 17세기 예서로 처음 등장하는 필적은 1601년에 세운 〈領議政盧守愼墓表〉이다(그림 4). 이 묘표에는 盧守愼의 자찬묘지명「暗室先生自銘」이 음기로 새겨져 있다.[14] 그의 문집에도 동일한 제목으로 실려 있다.[15] 許箴(1548-1612)이 전면 대자와 음기 모두 예서로 썼다. 허성은 許曄의 아들로, 許篈과 許筠이 그의 동생이다. 비문 말미에 "許箴隸"라고 하여 허성이 직접 썼음을 밝혔는데, '팔분'이 아닌 '예서'로 표기한 것이 특기할만하다. 전면 예서는 17세기 초반에 예서가 묘도문자의 서체로 자리 잡기 전의 특징인 해서화 경향을 띤다. 가로획의 기울기가 해서처럼 오른쪽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결구를 보인다. 특히 '文'과 '人'의 파임에 점을 덧붙인다든가 '文'과 '館'의 머리 부분 점을 기역자로 꺾는 방식은 바로 뒤 세대인 宋浚吉 계열의 예서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음기 글씨 역시 비슷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예서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다만 음기에는 예서 법서의 하나로 꼽히는 〈張遷碑〉 등 동한 예서의 특징적 자형과

11) '悲194'는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rmda.kulib.kyoto-u.ac.jp/collection/kinseki) 에서 부여한『金石集帖·續帖』의 첩명 '悲'와 일련번호 '194'를 뜻한다(이하 동일).
12) 李滉,『退溪集』권43,「題南季憲 彦紀 箴銘後」.
13) 도판은『뜻이 담긴 현판 扁額』, 한국국학진흥원, 2011, 40-41면.
14) 노수신의 자찬묘지명 바로 뒤로는 柳成龍의 기문도 새겨놓았다. 유성룡의 문집『西厓集』권4에「盧蘇齋自銘跋」이란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5) 盧守愼,『穌齋集』권10,「暗室先生自銘」.

획법이 곳곳에 보여 한예 서풍의 초보적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자료이다.



〈그림 3〉 李滉, 〈陶山書堂〉·〈隴雲精舍〉 편액, 도산서원.



〈그림 4〉 許筬, 〈領議政盧守愼墓表〉, 1601년, 『금석집첩』 闕52.

뒤의 〈부록〉에서 보듯 국내 석비에 예서 명문이 본격적으로 새겨지기 시작한 시점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고, 가장 성행한 시기는 18세기이다. 17세기 예서 석비의 본격적인 등장은 당시 문인들의 예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당색에 따라 예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先秦古文을 주창하며 남인계 글씨를 선도했던 許穆(1595-1682)은 예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 秦나라 때에는 李斯가 小篆을 만들고 程邈이 隸書를 만들었는데, 예서가 생겨나자 고문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 秦漢 이후로 풍기가 천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아, 太昊伏羲氏의 고아하고 예스러운 기운이 진나라 때부터 없어져 한나라를 거치면서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16)

허목은 진 이전의 고문을 이상적인 문자로 규정하고 삼대시대의 문자를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17) 따라서 진 이후의 문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

16) 許穆, 『記言』 권6, 「古文」, "至秦 李斯作小篆 程邈作隸書 隸書作而古文廢 (…) 可見秦漢以降 風氣淺薄 嗟乎 太昊蒼古之氣亡於秦 歷漢氏無餘矣."

17) 허목의 尙古觀과 미수전의 형성에 관해서는 김동건, 「眉叟 許穆의 篆書 硏究」, 『美術史學硏究』 210, 한국미술사학회, 1996, 35-69면.

특히 예서에 대해서는 '徒隸의 書'라 폄하하고, 예서가 변하여 초서가 크게 유행한 것이니, 해서와 초서 모두 성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강조하였다.[18] 이에 반해 기사환국(1689)으로 스승 宋時烈과 부친 金壽恒을 잃은 金昌協(1651-1708)은 허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 『老學菴筆記』에 이르기를, "한나라의 예서는 세월이 오래되어 풍우에 벗겨지고 침식되었다. 그래서 그 글자에 더 이상 날카로운 획이 없는 것이다. 근래에 杜仲微는 일부러 몽당붓을 사용하여 예서를 쓰고는 스스로 漢刻의 遺法을 얻었다고 하는데 어찌 그렇겠는가." 하였다. 내가 볼 때 근세에 許穆이 쓴 古篆도 이와 똑같다. 비단 전서와 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 그러한 점이 있다. 옛 樂府詩의 鐃歌와 鼓吹 따위는 자구에 斷續이 많아 왕왕 이어 읽을 수가 없는데, 이는 바로 자구가 빠져서 그런 것이다. 李攀龍의 무리는 이 점을 살피지 못하고 억지로 난삽한 말을 만들어 古體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두중미의 漢隸, 허목의 古篆과 같은 부류이다.[19]

김창협은 17세기에 허목으로 대변되던 상고적 문풍을 비판하고 天機의 발동과 성정의 眞을 강조한 인물이다. 위의 글은 남송의 시인이자 서예가였던 陸游의 『老學菴筆記』의 내용을 들어 허목이 견지했던 상고적 문자관과 남인계열의 의고적 문학관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20] 노론의 정점에 서있던 김창협으로서는 허목이 고문에 천착하는 것이 글자의 본질에 힘쓰지 않고 외형에 집착하는 두중미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창협의 비판과는 달리 허목이 이른 시기부터 팔분과 고전을 익혀 30세에 서격을 완성했다는 연보의 기록이 있다.[21] 또한 李瀷이 허목이

---

18) 許穆, 『記言別集』 권10, 「題熊淵石文後」, "古文廢而隸書作 隸書者 徒隸之書 又隸書變而草書大傳 楷草皆非聖人作之."

19)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老學菴筆記云 漢隸歲久 風雨剝蝕 故其字無復鋒鋩 近者杜仲微乃故用禿筆作隸 自謂得漢刻遺法 豈其然乎 余見近世許穆所爲古篆 正類此 不獨篆隸爲然 詩亦有之 古樂府鐃歌鼓吹之類 句字多斷續 往往不可屬讀 此乃有脫缺而然耳 李攀龍輩不察 乃强作佶屈語 以爲古體 此正杜仲微之漢隸 許穆之古篆也."

20) 김창협의 문학비평의 정치적 성격에 관해서는 김동준, 「정치권력과의 상관관계로 본 金昌協·金昌翕의 문학비평과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67, 한국한문학회, 2017, 139-177면.

21) 許磊, 『眉叟許先生年譜』 권1, "甲子 先生三十歲. 先生自兒時 習八分古文篆 至是體格俱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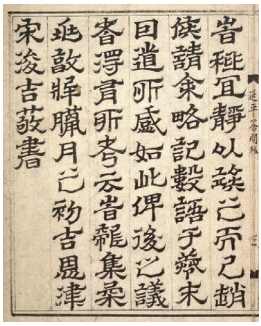
전서와 예서로 쓴 서첩을 보고 남긴 발문도 있다.[22] 이로 보면 허목이 예서를 부정한 것은 이론적인 태도에 국한된 것이지 실제 서예 학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허목의 의사가 어떻든 그의 상고적 문자관은 17세기 남인들에게 공명되며 완고한 틀을 형성하였고, 팔분으로 불린 예서는 서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자유로왔던 서인들에게 널리 수용되었다.

宋浚吉(1606-1672)의 선친 宋爾昌이 1613년에 파직되어 회덕의 별서에 거주할 때 가깝게 지내던 金尙容이 별서의 小屋에 '望辰居'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팔분으로 편액을 써준 일이 있다.[23] 그런데 병자호란(1636) 때 김상용이 써준 팔분 편액이 불타 없어지자 송준길이 김상용의 손자 金壽賓에게 팔분으로 편액을 다시 써줄 것을 편지로 청하였다.[24] 김상용은 淸風溪를 장동 김문의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전서에도 능해 비액에 많은 글씨를 남겼다.[25] 김상용과 송이창은 각각 예조참판을 지낸 金繼輝와 광주목사를 지낸 金殷輝의 사위로 광산김씨와 혼반을 이룬 사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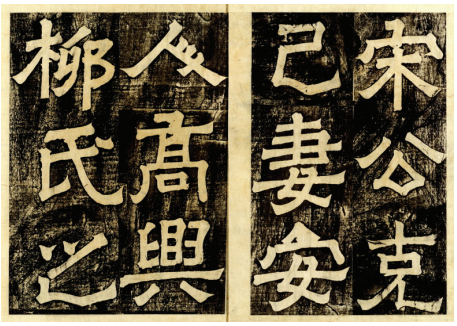
선대부터 이어진 가연으로 송준길은 팔분 서체를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다. 송준길은 집안 선조 비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자신이 직접 비문의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 팔분에 능했던 아들 宋光栻(1625-1664)도 집안 선조들의 비문을 쓰는 일에 자주 참여시켰다.[26] 뿐만 아니라 선친 송이창의 묘갈이 마모가 심해 다시 새길 때 자신이 예서로 음기를 쓸 계획을 가졌던 기록도 보인다.[27] 이를 보면 그가 비문 글씨로 전서뿐만 아니라 예서 역시 선호하며 자연스럽게 접했음을 알 수 있다.

---

22) 李瀷, 『星湖全書』 권56, 「跋眉叟先生篆隸三帖」.
23) 宋浚吉, 『同春堂集』 권21, 「先考淸坐窩府君行狀」.
24) 宋浚吉, 『同春堂集』 권14, 「與金廷叟壽賓」.
25) 張維, 『谿谷集』 권7, 「故右議政楓溪金公自撰墓銘後敍」, "公少工書 尤精篆籀 國家大典禮須用篆文及公私碑額 多出公手."
26) 宋浚吉, 『同春堂集』 권15, 「寄子」; 권16, 「曾祖考妣墓豎碣告文」.
27) 宋浚吉, 『同春堂集』 권16, 「先考妣墓豎石告文」.



〈그림 5〉 宋浚吉, 〈延平答問跋〉 부분, 1666년, 수원박물관.



〈그림 6〉 傳 宋光栻, 〈烈婦安人高興柳氏墓表〉, 1657년(추정), 『금석집첩』 冪192.

송준길이 예서로 쓴 필적이 『금석집첩』에는 없으나, 『延平答問』에 대한 발문을 예서로 쓴 진적 〈延平答問跋〉(그림 5)이 전한다.[28] 연기 군수 趙持綱이 목판본으로 인쇄하기에 앞서 발문을 요청해 써준 글로, 송준길의 유묵 중 드물게 예서로 쓴 필적이다. 그의 문집에도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29] 송준길의 이 글씨는 가로획의 波勢가 분명하게 보여 예서의 필법을 갖추고 있다. 다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등 부분적으로 해서의 필획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듯 해서의 점획법이 예서에 적용되는 사례는 바로 뒤 세대로 17세기 예서를 창도한 金壽增의 예서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송준길의 예서는 서인계 예서풍의 시작을 알리는 필적이라 할 수 있다.

『금석집첩』에 송준길 예서풍의 영향으로 보이는 필적 몇 점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宋克己(?-1392) 처의 묘표 〈烈婦安人高興柳氏墓表〉(그림 6)는 송준길의 예서와 매우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고흥유씨 묘표 바로 뒤로는 1657년에 세운 〈烈婦安人高興柳氏墓碣記〉 탁본이 실려 있다. 9대손 송시열이 짓고 8대손 송준길이 썼으며, 전면의 전서는 송준길의 아들 송광식이 썼다.[30] 그런데 고흥유씨의 묘갈기가 송시열의 문집에는 '先祖妣柳氏墓表'로

28) 『延平答問』은 宋 朱熹가 스승인 延平 李侗과 5년에 걸쳐 도학에 대해 질의 응답한 내용이다. 내용과 도판은 2020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書風萬里—조선서예 오백년』, 수원박물관, 2020, 118면.
29) 宋浚吉, 『同春堂集』 권16, 「延平答問跋」.
30) 송시열이 지은 묘갈기 원문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201, 「先祖妣柳氏墓表」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실려 있다는 점에서 〈열부 안인 고흥유씨 묘표〉 역시 같은 시기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금석집첩』에 송광식이 예서로 전면대자를 쓴 〈黃山書院碑〉(成27)가 있는데, 고흥유씨 묘표의 예서풍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열부 안인 고흥유씨 묘표〉도 송광식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흥유씨 묘표는 해서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진 자태를 보이고 경직된 해서의 점획법이 잔존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중반까지도 문인들 사이에 예서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송준길을 비롯한 서인계 집안을 중심으로 家傳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17세기 비문의 예서

17세기 예서를 이끌며 조선 후기 예서의 시원을 연 인물은 金壽增(1624-1701)이다. 김수증은 기사환국으로 宋時烈과 동생 金壽恒이 사망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강원도 화천의 谷雲에 들어가 은거하였다. 이후 북송의 성리학자들과 주자의 성리서를 탐독하는 등 시사에 관여하지 않고 은둔의 삶으로 일관하였다. 김수증의 졸기에 "篆籀와 八分에 더욱 뛰어나 공사간의 금석을 많이 썼다."고 하였듯 그는 전서와 예서로 필명이 높았는데,[31] 그 중에서도 예서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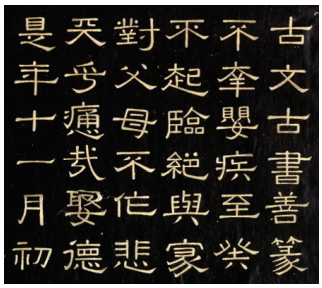
김수증이 1674년 50대 초반에 일가 金命碩(1623-?)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33] 정황상 이전에 김명석이 해서로 묘갈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답장한 편지이다. 김수증은 자신이 지금껏 고인의 팔분 서적 여러 종을 수시로 본받고 모방하여 몇몇 석비에 새긴 적이 있는데 해서보다 좀 나았다고 자평하였다. 나아가 팔분의 서법이 방정 근엄하고 가느다란 획이 없어 금석의 글씨로 가장 알맞다고 하며 예서로 쓰는 게 어떻겠냐는 편지를 보냈다.[34] 편지에서 느낄 수 있듯 김수증은 자신의

31)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1701) 3월 4일 신묘, "尤工於篆籀八分, 多書公私金石."
32) 김수증의 예서에 관해서는 이완우, 「谷雲 金壽增의 隸書」, 『미술사학보』 12, 미술사학연구회, 1999, 57-72면.
33) 金命碩의 본관은 安東, 자는 德耆로 金重鎰(1602-1667)의 아들이다.

예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컸다.



〈그림 7〉 金壽增, 〈淸陰金尙憲墓銘〉, 1671년, 『금석집첩』 珍58.



〈그림 8〉 金壽增, 〈金昌肅墓誌〉 부분, 1673년, 『금석집첩』 鞠155.

김수증이 사십대 중반에 쓴 〈淸陰金尙憲墓銘〉(그림 7)이 있다.[35] 전면에 대자로 쓴 예서는 가로획의 起筆 부분을 비스듬한 각도로 붓을 대는 해서 획법이 잔존하나, 가로획을 물결처럼 처리하는 波勢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정방형의 자형에 부분적으로 해서의 점획법이 보이지만, 부앙과 파세가 드러나며 예서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가 중년에 이르도록 예서를 깊이 학습했음을 보여주는 필적이다. 반면 김수증이 요절한 둘째 아들 金昌肅(1651-1673)을 위해 쓴 〈金昌肅墓誌〉(그림 8)을 보면 다소 납작한 자형에 가느다란 획법, 파세의 변화가 거의 없는 해서 형태의 획법이 두드러진다.[36] 앞선 시기에 구사했던 예서보다 오히려 해서에 가까운 단순화된 예서로 변모되어 있다.

김수증은 사신으로 청 연경에 갔을 때 서점에서 구입한 〈曹全碑〉 탁본첩에 대해 1673년에 발문을 남겼다. 그는 이 글에서 古隸와 八分에 대해 여러 설을 인용하며 설명하였다. 요컨대 秦漢시대의 예서가 고예인데 唐代에 이르러 팔분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서 필의가 많이 남아있는 西漢예서와

34) 金壽增, 『谷雲集』 권5, 「與金德耉」, "碣文之書 終不可辭 則當爲效拙矣 但拙筆 元無功程 懶廢多年 如金石之書 自視尤覺生硬 決不可傳示後人 向來漫得古人八分書跡數種 時時效擬 以爲無聊破寂之資 曾有小小石刻猶似稍勝於楷字 今此碣文 若用八分寫出 不強以所不足 則未知如何 (…) 蓋八書書法 方正謹嚴 且無細畫 最合於金石書耳 乞須卽示 以爲下筆之地如何."

35) 석비 원문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189, 「石室金先生墓表」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36) 석비 원문은 金壽增, 『谷雲集』 권6, 「亡子昌肅壙誌」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波勢와 俯仰의 필세가 부각되는 東漢 예서를 구분하였다. 나아가 漢隸는 방정하고 굳세어 골법이 많은 반면 唐隸는 비후하고 느슨하여 자태만 많다는 후인들의 논리를 인용하여 당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전비〉는 동한 시대의 舊刻이라 하고 서법이 그다지 빼어나지는 않지만 필의가 천연스럽고 소산 고아한 운치가 있어 제법 취할만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37]

위의 글들을 보면 김수증이 가졌던 예서에 대한 자부심은 한예에 대한 제가의 학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조전비〉를 포함한 다양한 한비의 학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김수증의 필적에서는 한예에 대한 그의 인식이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그의 말년작으로 사망하기 한 해 전에 쓴 〈仙源金尙容殉義碑〉(그림 9)가 있다. 1636년 병자호란 때 강화부 성 남문루에서 순절한 증조부 김상용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순의비이다.[38]



〈그림 9〉 金壽增, 〈仙源金尙容殉義碑〉 부분, 1700년, 『금석집첩』 水44.



〈그림 10〉 〈曹全碑〉 부분, 東漢 185년, 明拓.

37) 金壽增, 『谷雲集』 권6, 「書漢隸帖後」, "余購求古隸於燕肆而得此 此乃漢靈帝中平二年部陽令曹全紀德碑也 (…) 蓋篆籀於古初 隸分於秦漢 眞楷於魏晉 以後楷卽今隸 分卽古隸 或云分隸有別 或云漢謂之隸 唐謂之分 (…) 蓋漢之碑刻 無非古隸 而此本施之徒隸者 故學士大夫不留意 而無點畫俯仰之勢 亦不著姓名 以傳於後 (…) 故後人論之曰 漢法方而瘦勁而整 寡情而多骨 唐法廣而肥媚而緩 少骨而多態 又有唐無隸法之語 自玆以降 蓋無稱焉 由此論之 古今隸法高下 可推而知也 今此碑 似是漢時舊刻 不知何人所書 書法雖不甚工 而筆意天然 不無蕭散古雅之趣 其中亦頗有取法處 (…) 癸丑仲秋上浣 陶山漫人書."

38) 순의비 원문은 金昌協, 『農巖集』 권24, 「江華府南門仙源先生殉義碑記」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앞선 시기의 필적에 비해 필획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지만, 전형적인 한대 예서와는 달리 해서의 획법이 더욱 강조되어 있다. 획의 굵기에 변화가 거의 없고 글자의 틀도 해서처럼 정방형에 가깝다. 한예 특유의 굴곡진 획법이나 파세도 없이 파임의 끝부분만 강조되어 있다. 그가 익혔다는 〈조전비〉(그림 10)와 비교해보더라도 파세와 율동감으로 변화로운 형태를 보이는 동한 예서의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아마도 당예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나머지 예서의 획법을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굳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김수증은 17세기 당시 누구보다 예서에 관심이 컸고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예서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나간 노력 또한 여러 기록으로도 확인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의 한예 학습 수준이 실제 작품에 응용될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한 듯하다. 김수증의 예서는 이황의 편액 필적에서 봤듯이 전래 16세기 예서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예서에서 보이는 해서화 경향은 宋 劉球가 편찬한『隸韻』등의 字書類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39] 따라서 그의 예서는 漢碑 학습의 결과라기보다는 후대의 예서 자서류에 기반하여 자기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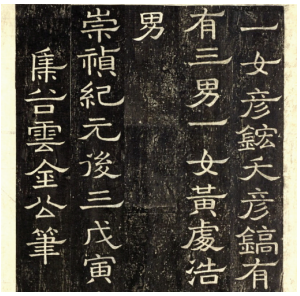
17세기 예서의 시원을 연 김수증의 예서는 이후 안동김씨를 비롯한 노론계 인사들의 묘비 명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승되었다. 그의 사후 김수증의 글씨를 모아 세운 집자비도 여러 기 세워졌는데, 비문 끝에 "전면의 글씨는 곡운선생의 예서를 집자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새겨놓아 집자비임을 밝혀놓았다.[40] 예컨대 묘갈 말미에 "集谷雲金公筆"이라는 문구를 새겨 장인 김수증의 생전 글씨로 사위의 묘갈을 세운 〈兪命健墓碣銘〉(그림 11)이 바로 그런 사례이다.[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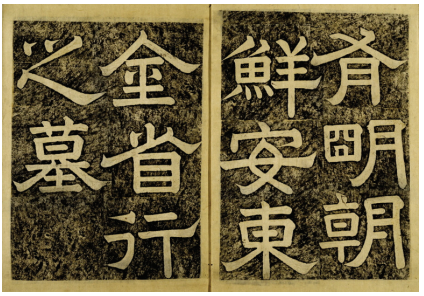
39) 이완우, 앞의 글, 69면; 16세기 예서와『예운』의 유사성은 이희순, 앞의 글, 64면.

40) 柳永立墓表(1745, 虞94), 洪象漢配漁氏墓表(1756, 女161), 金濟謙墓表(1778, 正216)에 "前面大字集摹谷雲金先生壽增遺筆" 또는 "前面集谷雲先生隸字" 등의 문구가 새겨져있다.

41) 묘갈명 원문은 李縡,『陶菴集』권34,「牧使兪公墓碣」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림 11〉 金壽增集字, 〈兪命健墓碣銘〉 부분, 1758년, 『금석집첩』 及142.



〈그림 12〉 金濟謙, 〈安東金省行墓表〉, 1722년, 『금석집첩』 終231.

김수증의 예서는 특히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었는데 종손 金濟謙(1680-1722)의 예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김제겸은 소론이 득세한 신임사화로 1722년 부친 金昌集이 사사된 뒤 바로 아들 金省行이 거듭된 심문으로 요절하였고, 뒤이어 김제겸 본인은 적소 富寧에서 사망했다. 묘표 음기의 내용에 따르면 김제겸이 신임사화로 적소 부령에 있을 때 아들 김성행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적소에서 바로 아들의 壙誌를 지었다고 한다. 당시 지은 광지로 후대에 음기의 내용을 보충하고 당시 쓴 대자 필적으로 김성행 묘표의 전면 글씨를 새긴 것이다(그림 12).

김제겸은 전서에 능해 『금석집첩』에도 그의 필적이 실려 있는데 唐 李陽氷 풍의 유려한 전서를 구사하였다.[42] 아들 김성행을 위해 쓴 묘표에서 드러나는 직선으로 곧게 뻗은 파세와 정방형의 자형에서 김수증 예서의 계승 양상을 살필 수 있다.

김수증의 뒤를 이은 17세기 예서 명필로 가장 먼저 꼽히는 인물은 金鎭圭(1658-1716)이다. 김진규는 송시열의 문인으로 본관은 光山이고 호는 竹泉이다. 김진규는 고조부 金長生의 현손으로, 부친 金萬基는 숙종의 장인이고 조부 金益兼은 영의정을 지낸 노론 명문 집안이다. 부친 김만기와 숙부 金萬重이 글씨로 유명하고 재종 형제되는 金鎭商은 18세기 서예를 한 차원 끌어올린 예서의 명가이다. 게다가 아들 金陽澤은 지금껏 거의 언급된 바 없는 18세기 예서의 명필이고, 형 金鎭龜의 네 아들 金春澤, 金普澤, 金雲澤, 金祖澤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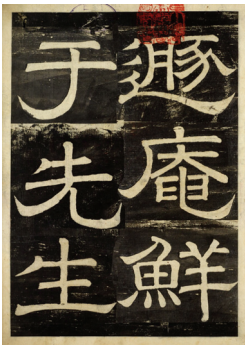
42) 김제겸의 전서는 兪檄望柱所刻挽祠別章(罪100)과 典薄吳士謙墓碣銘(場136)에 실려 있다.

글씨에 능해 『금석집첩』에 다수의 작품이 실려 있다.[43] 실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광산김씨 명필가로, 그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바로 김진규이다.

김진규는 전서와 예서에 능해 누대에 남긴 글씨가 많다. 개성의 '南大門'과 함흥의 '樂民樓', 은진의 '江鏡倉' 등에 힘차면서도 고아한 느낌의 편액을 남겼다.[44] 그는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에도 능했다. 화사 李命基가 그린 송시열의 초상화는 본래 김진규가 그린 出草本을 기초로 模寫한 것이었다.[45] 김진규는 화격이 매우 높아 특히 彩女와 水仙을 잘 그렸으며, 尹斗緖는 그의 彩女圖를 선비의 그림 중 제일로 꼽았다고도 한다.[46] 이런 기록들은 김진규가 서화 양 방면에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13〉 金鎭圭, 〈江華忠烈祠碑〉, 1701년, 『금석집첩』 水44.



〈그림 14〉 金鎭圭, 〈遯菴鮮于浹廟碣〉, 1713년, 『금석집첩』 毁159.

43) 金春澤 〈戶曹判書金鎭龜墓表〉(服86), 金祖澤 〈金若時墓表〉(霜40), 金雲澤 〈京畿監司洪處厚神道碑銘〉(伐99), 金普澤 〈刑曹參判金益勳神道碑銘〉(周101)의 필적이 각각 실려 있다. 대부분 이양빙풍의 소전과 수려한 송설체풍의 해서 필적이다.

44) 李裕元, 『林下筆記』 권29, 「金竹泉篆隸」.

45) 洪直弼, 『梅山集』 권5, 「與鰲村宋丈」, "鄙家藏老先生眞像 卽畫師李命基之模金竹泉所寫本也." 실제 김진규가 그린 송시열 초상 출초본 2종이 전하고 있다. 김진규가 출초하고 이명기가 전사한 초상화는 "尤菴宋先生眞"의 표제가 있는 〈송시열 방건야복상(方巾野服像)〉으로, 홍직필 종가에 전해 오다 2018년 경기도박물관에 기탁되었다. 또한 김진규가 1683년에 출초하고 尹相翊이 1697년에 전사한 것으로 전칭되는 金容魯의 이모본 《양정재시화첩(養正齋詩畵帖)》이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강관식, 「국보 〈송시열 초상〉의 제작 시기와 맥락」, 『미술사와 시각문화』 29,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2, 76-118면.

46) 李肯翊, 『燃藜室記述』 別集 권14, 「畫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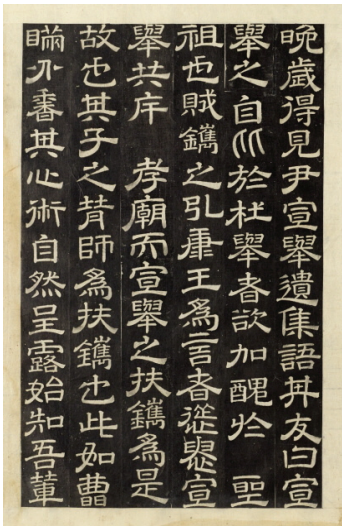
『금석집첩』에 김진규가 쓴 것으로 확인되는 예서 필적이 8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던 金尙容, 李尙吉, 沈俔 등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江華忠烈祠碑〉(그림 13)는 김진규가 대자 전서와 음기를 예서로 모두 썼다.[47] 그의 예서는 획의 굵기가 가늘고 정방형의 자형이 균일한 모습을 띤다는 점에서 김수증의 영향아래 놓여있다. 다만 해서화 경향의 필획이 사라지고 파임도 도톰해지는 등 동한 예서의 특징에 근접해있다. 그의 노년기를 대표하는 필적은 〈遯菴鮮于浹廟碣〉(그림 14)이다. '關西夫子'로 불렸던 평양 출신의 학자 鮮于浹(1599-1653)의 생애를 기록한 묘갈이다.[48] 전면에 대자로 쓴 김진규의 예서는 이전의 단정한 형태를 벗어나 있다. 글자 아랫부분의 공간을 넓혀 시원하고 늘씬한 자형이 돋보인다. 또한 파임의 강약을 조절해 파세가 완연히 드러나는 획법을 구사한 점이 눈에 띈다. 대체로 唐隸의 초기적 수용 형태를 보여 한예 서풍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전의 과도기적 서풍을 구사하였다.

광산김씨 집안에서 서가로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金陽澤(1712-1777)이다. 김양택은 광산김문 가전 서예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치에 있다. 그는 김장생의 5세손으로 1776년에 영의정에 올랐다.[49] 조부 김익겸과 부친 김만기를 포함해 본인도 대제학을 지내 '3대 문형'을 이룬 명문세족 출신이었다. 그러나 졸기에는 그가 "평소에 명성과 인망도 없이 선대의 음덕에 힘입어 華要직을 지냈고, 글을 못하면서 文柄을 잡은 것은 김양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며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50] 김양택은 사후에 아들 金夏材(1745-1784)가 일으킨 투서사건으로 벼슬을 추탈당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복관된 바 있다.[51] 김하재 사건은 김양택 사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명문세가의 견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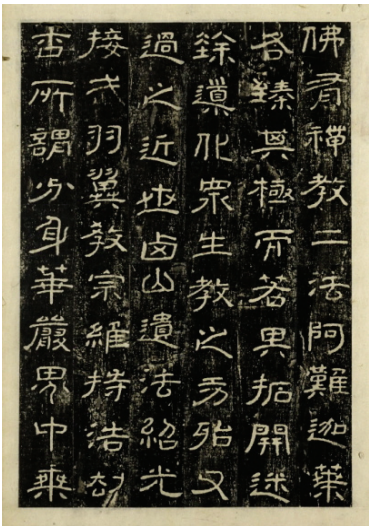
47) 충렬사비 원문은 權尙夏, 『寒水齋集』 권25, 「江華忠烈祠庭碑」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48) 묘갈 원문은 宋時烈, 『宋子大全』 권172, 「遯菴鮮于公墓碣銘」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49) 『정조실록』 권1, 정조 즉위년(1776) 3월 19일 경인.
50) 『정조실록』 권4, 정조 1년(1777) 8월 22일 을묘.
51) 이른바 '김하재 사건'은 김하재가 1784년(정조 8) 永禧殿告由祭의 헌관으로 분향을 준비 중에 정조의 실덕을 비판하는 쪽지를 고의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 일로 김하재는 대역부도죄인으로 주살당했고, 가산 적몰과 破家瀦宅 외에 처와 자녀는 모두 변방의 노비가 되었다. 『정조실록』 권18, 정조(1784) 8년 7월 29일 임오. 김하재 사건에 관해서는 박성순, 「正祖代 '金夏材 事件'의 전

위상을 갖고 있던 그의 과거의 행적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졸기 역시 후대의 기록이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김하재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양택은 書格이 매우 뛰어났음에도 그의 글씨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남아있는 필적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역시 아마도 김하재 사건으로 인한 여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김양택의 예서 필적이 『금석집첩』에 2점 실려 있다. 그중 〈竹泉金鎭圭墓表〉(그림 15)는 부친 김진규의 묘표를 직접 쓴 필적이다.[52] 전면 대자는 韓濩 글씨를 집자했고, 음기는 예서로 썼다. 왼쪽 아래로 내리는 掠劃(丿)과 오른쪽 아래로 내리는 파임(乀)이 이전 시기의 예서와는 다르다. 파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붓 끝을 치켜 올리듯 뾰족하게 마무리하는 과장된 필획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체로 동한 예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 18세기 중반 예서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림 15〉 金陽澤, 〈竹泉金鎭圭墓表〉, 1753년, 『금석집첩』 墨193.



〈그림 16〉 金陽澤, 〈天然大師碑銘〉, 1753년, 『금석집첩』 聽224.

말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121-150면 참조.

52) 김진규 묘표 원문은 李宜顯, 『陶谷集』 권20, 「禮曹判書竹泉金公墓表」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김양택의 또 다른 예서 필적 〈天然大師碑銘〉(그림 16)은 天然大師(1681-1749)의 행적과 법통을 기록한 석비이다. 비문에 따르면 천연대사의 법명은 智文이고, 密雲金氏 출신으로 속명은 金春鳳이다. 9세에 묘향산 보현사에 들어가 13세에 승려가 되었다. 고승 月渚를 종주로 삼고 雪巖契에 참여하여 깊은 깨달음을 얻은 뒤 虛靜(1670-1733)의 의발을 전수받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53]

그가 쓴 〈천연대사비명〉은 18세기 중반의 예서 작품 중 매우 주목을 끄는 필적이다. 개인적 習氣나 과장된 필획이 드러났던 이전시기의 과도기적 특징들이 말끔히 해소되어 있다. 17세기에 유입되었던 〈조전비〉를 바탕으로 18세기 초반에 널리 학습되던 동한 〈夏承碑〉의 특징들이 잘 융화되어 있다. 또한 고박한 전서 자형을 자유자재로 섞어 단아하면서 늘씬한 미감을 자아낸다. 전면의 대자 소전 역시 그의 필적으로 이양빙풍을 근간으로 한 고졸한 소전의 기풍을 보여준다. 동한 예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이 겸비된 수준 높은 독자적 예서풍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한다.[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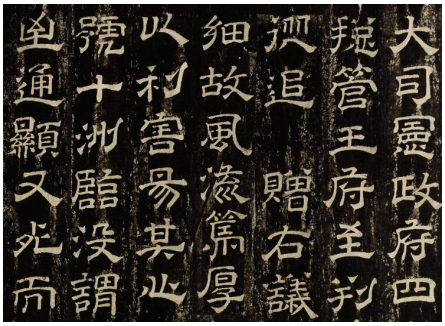
『금석집첩』에 수록되어있는 예서 필적을 살펴보면 17세기에는 주로 노론 계열의 서가들이 예서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정치적으로 대척에 있던 남인 계열 서가들의 필적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끄는 인물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韓德欽이다. 한덕흠은 金川郡守를 지낸 韓墊(1646~1710)의 아들로 본관은 淸州이다. 그의 고조부 韓汝溮(1575-1638)을 위해 쓴 〈行禮曹判書韓汝溮墓碣銘〉(그림 17)이 있는데, 한덕흠의 필적으로 추정된다.[55]

---

53) 월저와 설암은 楓潭(1592-1665)의 법계를 이은 17세기 후반의 고승이고, 허정 역시 설암의 법통을 이은 고승이다. 정병삼, 『한국 불교사』, 푸른역사, 2020, 558면 '18세기 활동 주요 승려 법계' 표 참조.

54) 〈천연대사비명〉이 같은 해에 쓴 〈죽천김진규묘표〉와 서풍이 다른 점은 현재로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양택 예서 필적의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

55) 묘갈의 원문은 許穆, 『記言別集』 권18, 「禮曹判書韓公墓碣銘」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림 17〉 傳 韓德欽, 〈行禮曹判書韓汝溍墓碣銘〉 부분, 1704년, 『금석집첩』 人79.

묘갈명의 내용에 따르면 한여직은 별호가 十洲였으며 필법이 호탕하였다고 한다. 병자년(1636)에 좌참찬으로 남한산성에서 인조를 호종한 뒤 대사헌에 올랐고 예조판서로 별세하였다. 한덕흠의 조부 韓五奎는 許穆과 교유한 사이이다. 한오규의 아들이자 한덕흠의 부친 한돈은 이른 나이에 허목의 문하에 들어갔다. 허목의 부고가 났을 당시 한돈이 스승의 遺像을 그려 고택에 봉안하고 허목의 자찬 自銘碑를 돌에 새겨 허목의 집에 보냈고, 스승으로부터 받아둔 〈척주동해비〉 후본으로 허목 사후 부서진 동해비를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56] 이를 보면 그가 서화 및 각석에 꽤 조예가 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여직묘갈명〉에는 서자의 이름이 새겨져있지 않다. 한덕흠이 쓴 5대조 韓準의 묘갈 〈左參贊淸川君韓準墓碑銘〉(1709년)이 『금석집첩』(火75)에 실려 있는데 〈한여직묘갈명〉의 예서풍과 거의 흡사해 동일인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한돈이 김천부사로 있을 때 세운 12대조 韓脩의 〈宰相韓脩墓表〉(改172) 예서 역시 유사한 서풍을 보이고 있어 한덕흠의 필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덕흠이 청주한씨 선조비문의 명문을 예서로 남긴 것은 허목의 문하였던 부친 한돈의 서화와 각석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여직묘갈명〉의 예서는 파동세의 예서 획법이 뚜렷이 적용되기 시작한 17세기 초반 예서풍의 연장에 놓여있다. 동시기에 활동한 김진규의 예서에서 보인 당예의 초기적 수용 형태를 보인다. 다만 古篆에서 유래된 예서 자형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는 허목으로부터 비롯된 선진

56) 蔡濟恭의 기록에 의하면 허목이 삼척부사로 있을 때 직접 짓고 전서로 쓴 〈東海碑〉를 萬里島에 세웠는데, 허목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다고 한다. 이에 한돈이 삼척부사 洪萬紀와 의논해 스승 허목이 말년에 자신에게 다시 써줘 간직해온 後本으로 개각하여 세웠다고 한다. 蔡濟恭, 『樊巖集』 권49, 「贈吏曹參判行金川郡守韓公墓碣銘」.

고문에 바탕을 둔 문자관이 예서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체로 과도기적 한계를 보인 전래 예서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 18세기 비문의 예서

18세기 예서의 선구로 단연 金鎭商(1684-1755)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김장생의 현손이자 金萬埰의 아들로 김진규와는 재종 형제간이다. 정치적으로는 강골의 노론 입장을 고수하였다. 평소 산수를 좋아해 팔도를 두루 다니며 백두산까지 올랐고, 만년에 이르도록 금강산을 여러 차례 유람하였다.[57] 그는 김생체를 잘 썼고 특히 팔분서에 능해 당시 노론의 碑誌가 그의 손에서 폭주하였다. 李宜顯・李縡의 문장과 김진상의 글씨를 비문으로 청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58] 『금석집첩』에도 이의현 또는 이재와 짝을 이뤄 예서로 써준 비문이 6점 수록되어 있다.



〈그림 18〉 金鎭商, 〈兵曹參判金萬埰墓表〉, 1716년, 『금석집첩』 周101.

김진상이 부친의 묘표 〈兵曹參判金萬埰墓表〉(그림 18)에 전면대자로 쓴 예서는 30대 초반의 필적으로, 김진상 예서의 초기 형태를 살필 수 있다. 김수증의 영향으로 단정한 결구를 보이지만, 약획(丿)과 파임(乀)이 강조되어 활발하면서도 강건한 느낌을 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김진규 노년기 예서에서 보인 唐隸의 초기적 수용 형태와도 유사하다.

---

57) 서인숙, 「퇴어당유고(退漁堂遺稿) 해제」, 『退漁堂遺稿』(한국문집총간 속 66), 한국고전번역원, 2011.
58) 李奎象, 『一夢稿』 幷世才彦錄 「書家錄」, "金鎭商字太白號退漁 (…) 筆善金生體於楷字 尤善用八分書 (…) 老論碑誌 輻輳於其手 當時碑文 則求李相宜顯與李陶庵縡之文 筆則求退漁之書 三家几案 積人家紙本 不暇酬應者 殆三四十年餘."

그가 50대 중반에 쓴 〈新羅王子遺墟碑〉(그림 19)는 김진상 예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필적이다. 약획과 파임의 과장된 획법이 여전히 보이지만 초기 글씨에 비해 원필의 후중한 운필이 더욱 두드러진다. 김진상의 예서는 약획과 파임의 강조, 그리고 후중한 원필의 파세로 요약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당나라 때 예서의 중흥을 이끈 당 현종의 이른바 '당예'와 매우 흡사하다. 당 현종의 필적(그림 20)과 비교해보면 김진상이 당예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예의 특징은 윤택한 필획과 비후한 파임, 상하 좌우의 대칭이 뚜렷하고 장식적 자태가 많다. 다양한 변화와 고졸한 필획을 특징으로 하는 한예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19〉 金鎭商, 〈新羅王子遺墟碑〉, 1739년, 『금석집첩』 玄3.



〈그림 20〉 唐 玄宗, 〈紀泰山銘〉 부분, 726년, 東京國立博物館.

당예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해 李匡師가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전래된 예서가 없고 다만 당 현종의 〈孝經〉과 〈泰山碑〉가 있을 뿐인데 필력이 둔하고 속되어 볼 만한 게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59] 이광사 이전 시기에 이미 당예가 전해졌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김진상이 이광사보다 20년 전배임을 감안할 때 김진상이 당예를 선진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김진상은 파세가 현저한 당예를 수용함으로써 17세기 조선 예서의 초보적 수준을 격상시켰다. 18세기 초반 김진상의 당예 수용은 김수증 시기 한예 수용의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 한예의 원형에 보다 근접해 갈 수 있는

59) 李匡師, 『書訣』 前編, "東國曾無隸書之來 只有玄宗孝經泰山碑 鈍俗不足觀."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김진상 계열의 예서로 趙顯命(1690-1752)의 글씨 또한 주목된다. 조현명 가문은 정치적으로 소론 세력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노론의 핵심가문인 외가(金萬均) 광산김씨와 형 趙文命의 처가(金昌業) 안동김씨와 인척관계를 맺으며 노론계 명사와 널리 교유하였다. 그는 영조 때 金在魯·宋寅明과 더불어 노소탕평을 주도했는데, 부친 조인수가 숙종 때 탕평론을 주창했던 박세채의 문인이었던 점이 중요한 매개가 되었다.[60]

조현명은 10대조 趙愼의 묘표 〈淮陽府使趙愼墓表(新碑)〉(그림 21)를 전면 대자와 음기 모두 예서로 썼다.[61] 비문 내용에 따르면 8대손 趙涑이 망실된 사적과 흩어진 기록들을 모은 것을 토대로 비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조속은 『金石淸玩』을 편찬하는 등 당대 금석문 수집활동의 선구였다. 조현명의 풍양 조씨 집안은 조속으로부터 비롯된 금석명문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광산김씨와 안동김씨와의 혼맥을 통해서도 전예 등 다양한 서풍을 구사한 명필을 배출하였다. 조현명의 종조부 趙相愚는 왕희지에 근간을 둔 해행에 능통하여 17점의 필적이 『금석집첩』에 실려 있고, 형 趙文命도 여러 점의 명문이 『금석집첩』에 실리는 등 소전, 예서, 행서에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조문명은 尹淳(1680-1741)과 짝을 이뤄 다수의 비문 글씨를 남겼으며, 『금석집첩』에 수록된 그의 행서 필적은 윤순으로부터의 영향을 짐작케 해준다.[62] 조현명이 예서로 쓴 〈회양부사조신묘표(신비)〉는 당예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비후함을 덜어내 보다 늘씬한 운필을 보인다. 김진상의 예서풍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파세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동한 예서의 전형에 보다 가까워져있다.

이밖에 김진상의 예서풍을 따른 대표적 서가로 洪啓字(1694-1733)와 權搢(1727-1765)을 들 수 있다.[63] 이들의 예서는 약획과 파임이 절제되고 글자의

60) 이근호, 「탕평의 이론가, 조현명」, 『내일을 여는 역사』 4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2, 159-17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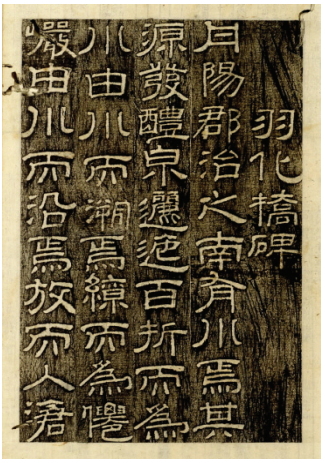
61) 비문 말미에 새겨진 찬자는 9대손 강원도관찰사 趙最壽로 되어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趙文命의 『鶴巖集』 책5에 「十代祖淮陽府君墓表」로 수록되어 있어 조문명의 저술로 되어있다.

62) 윤순은 조문명 사후 그의 묘표(染196)를 써주었다. 조문명이 쓴 〈淸州三忠祠碑〉(器189) 는 윤순의 행서풍과 유사해 둘 간의 영향관계를 짐작케 해준다. 조현명 역시 전서에 능해 외현조부 洪瑞鳳의 신도비(光56)를 윤순과 함께 썼다.

아랫부분이 넓어지는 등의 변화를 보여 1750년대 예서풍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64)



〈그림 21〉 趙顯命, 〈淮陽府使趙愼墓表(新碑)〉, 1734년, 『금석집첩』 改172.



〈그림 22〉 南有容, 〈丹陽羽化橋記事碑〉, 1754년, 『금석집첩』 談178.

『금석집첩』에 실린 예서 비문 필적은 1750년대를 기점으로 한예의 전형적 특징이 농후해진다. 이전에 강조되던 약획과 파임의 강조가 매우 절제된 형식으로 나타나고, 점획도 부드러운 圓筆이 현저해진다. 그 시초를 보여주는 필적으로 南有容(1698-1773)의 〈丹陽羽化橋記事碑〉(그림 22)를 들 수 있다.65) 전면 대자는 소전으로, 음기는 예서로 썼다. 납작하거나 정방형이었던 이전의 예서에 비해 세로로 긴 결구와 부드러운 필획이 두드러진다. 동한의 〈하승비〉 또는 〈乙瑛碑〉(153년, 孔和碑로도 불림)를 학습한 흔적이 엿보인다. 원필의 유연한 필획과 글자의 아랫부분 공간을 넓게 포치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김양택과 동시대의 송문흠, 이인상의 예서에도 보이는 공통적 특징이다.

남유용의 아들 南公轍의 「書畵跋尾」에는 서화 관련 제발이 116편(書67편

63) 洪啓宇 〈高麗大師洪殷悅墓表〉(1730, 미상229), 權摭 〈左參贊權㙫墓表〉(1750, 裳88).
64) 權摭은 병조판서를 지낸 權尙의 아들이다. 權㙫의 손자이고 權常愼의 부친이다. 홍진옥, 「薝庭 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66면.
65) 비문 원문은 南有容, 『雷淵集』 권19, 「羽化橋碑」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畵49편) 실려 있다. 그의 서화 수장과 감식 안목이 부친 남유용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66] 남유용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매우 좋아해 인근에 살던 趙涑이 수집해둔 安堅·李楨의 그림과 李秉淵이 화가 鄭歚의 안목을 통해 수집해둔 古畫를 수차례 감상하였고, 두문불출하며 수묵을 익힐 만큼 그림에 심취한 적도 있었다.[67] 또한 가깝게 지내던 兪郁基가 소장한 大東翰墨卷, 왕희지가 쓴 불경, 중종조 명필 金緣의 필적 등에 제발을 남긴 것을 통해서도 그가 서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68] 남유용의 서예적 재능은 그간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러한 점에서 『금석집첩』에 실린 남유용의 〈단양우화교기사비〉는 그의 감각적인 전서와 예서풍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1750년대를 기점으로 예서 필적에 원필의 유연한 획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한비 학습의 영향이 분명하다. 어느 한비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는지는 적시할 수 없지만 당시의 문헌이나 남아있는 필적을 통해 볼 때 〈夏承碑〉와의 관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하승비〉의 원명은 〈漢北海淳于長夏承碑〉로 동한 170년에 세워졌다. 원석은 훼손되어 명나라 1543년에 唐曜가 중각하였으며, 王惲의 『秋澗集』의 기록에 의거하여 蔡邕이 쓴 글씨로 알려져 왔다.[69] 그러나 明 王世貞은 〈하승비〉에 쓰인 예서에 篆籀의 필법이 있다고 한 뒤 채옹이 쓴 게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70] 이후 청의 서예가 翁方綱은 〈하승비〉가 篆籀를 온전히 참고하여 고금 서예의 하나의 큰 빗장이 된다고 극찬한 한편,[71] 碑學 이론가 康有爲는 〈하승비〉의 奇古한 점을 들어 채옹의 글씨가 아니라고 확신하였다.[72]

---

66) 문덕희, 「南公轍(1760~1840)의 『金陵集』에 보이는 中國書畵에 대한 認識」, 『미술사학연구』 213, 한국미술사학회, 1997, 85-116면.

67) 南有容, 『雷淵集』 권13, 「題伯氏漁父圖小詞後」.

68) 南有容, 『雷淵集』 권5, 「題大東翰墨卷首」; 권13, 「書右軍筆佛經」, 「自庵大筆跋」.

69) 李裕元, 『林下筆記』 권4, 「碑碣之屬 二」.

70) 王世貞, 『弇州山人四部稿』, "其隸法時時有篆籀筆 與鍾梁諸公小異 而骨氣洞達 精彩飛動 疑非中郎不能也 然蔡集不載 而他書亦不可考 姑闕之以俟知者."

71) 翁方綱, 『兩漢金石記』, "是碑體參篆籀 , 而兼下開正楷法 , 乃古今書道一大關捩."

72) 康有爲, 『廣藝舟雙楫』, "唐隸似出夏承爲多 王惲以夏承飛動 有芝英龍鳳之勢 蓋以爲中郎書也 吾謂夏承自是別體 若近今冬心板橋之類 以論語核之 必非中郎書也."

이광사 역시 우리나라에 팔분서로 전래된 유일한 한비가 〈하승비〉라 하고, 둔하고 물러 전혀 아름답지 않다며 가짜로 의심하였다.[73] 문헌에서 보이는 이들의 주장은 요컨대 〈하승비〉가 古篆의 획법이 섞인 예서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진위 여부를 떠나 1750년대의 예서 필적에 원필의 유연한 획법이 나타나는 것은 전서의 획법이 가미되어 있는 〈하승비〉를 익힌 결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여겨진다.

송준길의 4세손으로 예서 명필이었던 宋文欽(1710-1752) 역시 〈하승비〉를 익혔는지 이에 대한 글을 남겼다. 그는 〈하승비〉가 예서 필법을 빼는 대신 전서 필법을 많이 취하여 기존의 한비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74] 송문흠이 예서로 쓴 조부 宋炳遠의 묘표 〈禁府都事宋炳遠墓表〉(그림 23)는 부드러운 전서의 획법이 많이 섞여있다.[75] 〈하승비〉(그림 24)보다는 정제된 모습을 띠지만 전서 자형이 부분적으로 섞이고 곡선의 유연한 획법이 드러나는 데서 〈하승비〉를 익힌 흔적이 엿보인다.

李奎象(1727-1799)은 송문흠의 예서에 대해 "글자의 배열에 살이 많은 편이지만 풍골에는 해롭지 않다."고 평한 바 있다.[76] 여타의 한비에 비해 살집이 두텁고 유연한 획법이 드러나는 〈하승비〉의 특징을 송문흠의 예서에서 간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송문흠이 1747년에 쓴 〈進士鄭稡墓碣銘〉(常152)을 포함해 〈하승비〉의 영향이 보이는 필적이 『금석집첩』에 수록되어 있어 18세기 들어 〈하승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77]

---

73) 주석 59 참조.

74) 宋文欽, 『閒靜堂集』 권3, 「答金仲陟」, "分隸之別 舊見諸書 皆云秦程邈作隸 徑趨簡略 而蔡邕以爲太簡 去隸八分 取篆八分 作八分 王弇州以皇象天發碑 中郎夏承碑 謂是八分 驗所見漢碑 大略相似 而惟夏承碑爲判異 故每以爲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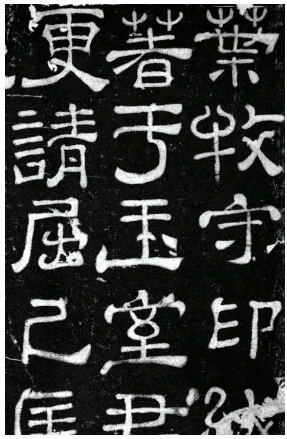
75) 묘표 원문은 權尙夏, 『寒水齋集』 권32, 「都事宋公炳遠墓表」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76) 李奎象, 『一夢稿』 幷世才彦錄 「書家錄」, "宋文欽 字士行 蔭縣監 號閒靜堂 (…) 其八分法妙 排字肉多 而不妨於風骨."

77) 〈하승비〉 수용을 보여주는 필적은 〈槐山郡守李崇臣墓表〉(1758, 及142), 〈正郎楊士衡墓碣〉(1749, 景201)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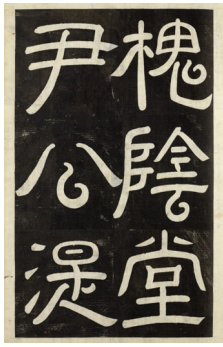
〈그림 23〉 宋文欽, 〈禁府都事宋炳遠墓表〉, 1750년, 『금석속첩』 萬143.



〈그림 24〉 〈夏承碑〉 重刻本 부분, 東漢 170년(原碑).



〈그림 25〉 李麟祥, 〈利川府使金有鉉墓表〉, 1752년, 『금석집첩』 羊200.



〈그림 26〉 李麟祥, 〈槐陰尹湜墓表〉, 1755년, 『금석집첩』 鞠155.

서얼 출신의 문인서화가로 송문흠과 가깝게 지냈던 李麟祥(1710-1760) 역시 적극적으로 〈하승비〉를 수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예서로 쓴 〈利川府使金有鉉墓表〉(그림 25)는 원필의 전서 획법이 적용된 감각적인 예서를 선보이고 있다.[78] 송문흠의 예서풍과 매우 유사하나 오히려 원필의 전서 획법이 더욱 현저하다. 그의 또 다른 필적 〈槐陰尹湜墓表〉(그림 26)에서는 전서 자형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 전예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이인상의 역량이 더욱 돋보인다.[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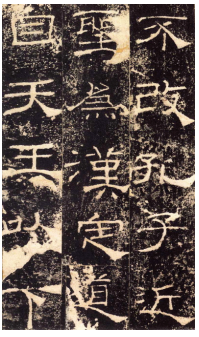
78) 묘표 원문은 南有容, 『雷淵集』 권22, 「利川府使金公墓碣銘」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인상은 전서와 예서를 포함해 그림과 전각에도 능했다. 李奎象은 전서의 거벽으로 허목을 꼽는 한편, 허목 이후로는 이인상의 전서와 팔분이 허목에 비길만하다 하였다. 또한 역량은 허목에 좀 못 미칠 수 있으나 조화로움은 오히려 나은 점이 있다고 하여 그의 전서와 예서를 높이 평가하였다.[80] 김정희 역시 이인상의 예서에 文字氣가 있다 하여 18세기 후반의 예서 명필 曺允亨과 兪漢芝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였다.[81]

이인상과 가깝게 지낸 李胤永(1714-1759)은 禮器碑, 孔和碑, 史晨碑, 孔宙碑 등의 한비를 임모한 이인상의 글씨에 대해 평한 바 있다.[82] 이를 통해 이인상이 다양한 동한 예서를 익혔음을 알 수 있다. 『금석집첩』에 실린 그의 필적은 예기비 등의 한비에 비해 하승비의 특징이 더욱 드러나 그의 예서가 하승비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李匡師, 〈左議政李台佐墓誌〉, 1742년, 『금석집첩』 羔199.



〈그림 28〉 〈禮器碑〉 부분, 東漢 156년, 明拓

18세기 중반 예서 성행의 대미를 장식하는 서가는 李匡師(1705-1777)이다.

79) 묘표 원문은 朴弼周, 『黎湖集』 권25, 「通德郎尹君墓表」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80) 李奎象, 『一夢稿』 幷世才彦錄 「書家錄」, "李麟祥 字元靈 號凌壺 又曰雷象觀 (…) 麟祥多才藝 善詩文・篆・八分・書牘書 善畵 善刻圖章石 我國篆巨擘 推許穆眉叟者 許畫鐵畫法 森若古秦漢前法 許篆後 麟祥篆・八分 直伯仲許篆 力量或似略遜 而造化反有勝處."

81) 金正喜, 『阮堂集』 권7, 「書示佑兒」, "近日如曹知事兪綺園諸公 皆深不隸法 但少文字氣 爲恨恨處 李元靈隸法畵法 皆有文字氣 試觀於此 可以悟得其有文字氣然後可爲之耳."

82) 李胤永, 『丹陵遺稿』 권13, 「題元靈漢碑摹後」.

그는 가까이 지냈던 金光遂의 서화 금석 수집에 힘입어 〈예기비〉와 〈受禪碑〉 등 다양한 漢·魏 비탁을 접할 수 있었다.[83] 이광사는 한비 중 〈예기비〉를 가장 뛰어난 예서비로 인식하였다. 반면 송문흠·이인상 등이 주력했던 〈하승비〉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하였다. 그가 예서로 쓴 〈左議政李台佐墓誌〉(그림 27)는 〈예기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필적이다.[84] 그는 〈예기비〉와 〈수선비〉에 대해 "굴곡이 가장 심해 획이 굳세고 건실함이 단연 뛰어나다."고 하였는데, 이태좌 묘지에서 보이는 꿈틀대는 듯한 굴곡진 필획들은 그가 줄곧 견지하고자 했던 예서의 획법이었다. 〈예기비〉(그림 28)와 비교해보면 한비에 대한 임모와 학습이 매우 정치했던 그의 역량을 읽을 수 있다.

이광사의 예서 필적은 이밖에 〈右相鶴南鄭羽良墓誌〉(1754, 羔199)이 『금석집첩』에 실려 있는데, 다양한 한예를 섭렵해 자기화한 형태를 보인다. 이광사 뒤로 尹東暹(1710-1795)과 李漢鎭(1732-1815) 등의 예서 명가가 속출하며 18세기 후반의 예서를 성숙시켰고, 兪漢芝(1760-1834)는 개성적인 예서로 19세기 예서풍을 일신하였다. 『금석집첩』에 이들의 필적이 실려 있지 않아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없지만, 한비의 본격적인 수용을 이룬 이광사의 선학이 이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5. 맺음말

『금석집첩』에 수록된 탁본에는 김수증 계열에 속하는 예서 필적이 35점 실려 있어 가장 많은 수를 헤아린다. 그중에는 집자비를 비롯해 김수증의 예서풍을 따른 필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그가 17세기 조선에 예서를 흥기시킨 독보적 인물이었음을 말해준다. 김수증은 청 연경에서 구입한 〈조전비〉에 대해 품평을 남기는 등 한예에 대한 관심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가 남긴 다수의 예서 필적에 해서화의 경향이 현저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수증 이후 예서로 두각을 나타낸 명서가로 광산김씨 집안의 김진규·김양택

83) 李匡師, 『圓嶠集選』 권10, 「書訣」, "三十年來 金光遂成仲癖於古 創購得漢魏諸碑 禮器受禪爲最 (…) 大率禮器受禪等 佶曲最甚 故晝以而勁健出類."

84) 묘지 원문은 李宗城, 『梧川集』 권11, 「先考忠定公墓誌」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다.

부자와 김진상을 들 수 있다. 이 중 김진상은 『금석집첩』에 20여기 이상의 비문을 예서로 남긴 명서가이다. 그는 김수증의 예서풍을 벗어나 당예를 수용하여 18세기 예서의 풍격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한 김양택은 17세기 예서에서 노정되었던 과도기적 습성들을 불식하고 동한의 〈조전비〉와 여타의 한예를 융화한 격조 있는 예서를 선보였다. 아들 김하재의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그에 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껏 서예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김양택의 예서를 『금석집첩』에서 발견한 것은 이 연구에서 얻은 의외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의 명서가로 남유용, 송문흠, 이인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예서에서는 동한의 〈하승비〉를 비롯해 〈을영비〉 등의 한비를 익힌 흔적이 보여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동한의 비탁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예서에서 보인 공통적인 특징은 〈하승비〉에 근간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하승비〉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배경을 알 수 없지만, 전서의 획법이 많이 가미된 〈하승비〉를 바탕으로 18세기 예서의 독특한 풍격을 이뤘다는 점은 서예사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18세기 예서의 대미를 장식하는 서예가는 단연 이광사이다. 〈예기비〉와 매우 흡사한 필적을 포함해 한예 비탁의 다양한 학습이 엿보이는 필적들에서 18세기 조선에 한예의 전형을 처음으로 확립한 그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이상 김수증으로부터 이광사에 이르는 예서는 초기의 경직된 필획이나 해서화 경향을 보인 필법으로부터 점차 당예 또는 한예의 풍격을 갖추어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숙종연간으로부터 대청관계가 회복되며 서화와 비탁의 유입이 자유로워졌고, 이로 인해 금석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며 한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결과였다.

『금석집첩』에 실린 예서 필적은 당색으로 볼 때 대부분 노론에 속한 서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정 서체에 대한 편향을 굳이 정치적 대립관계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주로 남인들에 의해 古篆이 계승된 반면 서인들이 예서에 집중한 경향을 보인 게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금석학의 발흥에 따라 전예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었던 17·18세기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 참고문헌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동국대출판부, 2018.
심경호,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정병삼, 『한국 불교사』, 푸른역사, 2020.

강관식, 「국보 〈송시열 초상〉의 제작 시기와 맥락」, 『미술사와 시각문화』 29,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22, 76-118면.
구자훈・한민섭, 「金在魯 『金石錄』의 구성과 그 특징」, 『한국실학연구』 21, 한국실학학회, 2011, 237-302면.
김동건, 「眉叟 許穆의 篆書 硏究」, 『美術史學硏究』 210, 한국미술사학회, 1996, 35-69면.
김동준, 「정치권력과의 상관관계로 본 金昌協・金昌翕의 문학비평과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67, 한국한문학회, 2017, 139-177면.
문덕희, 「南公轍(1760~1840)의 『金陵集』에 보이는 中國書畵에 대한 認識」, 『미술사학연구』 213, 한국미술사학회, 1997, 85-116면.
박성순, 「正祖代 '金夏材 事件'의 전말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121-150면.
박진완, 「京都大學 부속도서관 소장 『金石集帖』자료 현황」, 『해외사료총서15—일본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Ⅲ』, 국사편찬위원회, 2007, 169-245면.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學 硏究」,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2014.
서인숙, 「퇴어당유고(退漁堂遺稿) 해제」, 『退漁堂遺稿』(한국문집총간 속 66), 한국고전번역원, 2011.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이근호, 「탕평의 이론가, 조현명」, 『내일을 여는 역사』 49,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2, 159-175면.
이완우, 「谷雲 金壽增의 隸書」, 『미술사학보』 12, 미술사학연구회, 1999, 57-72면.
이희순, 「朝鮮時代 隸書風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홍진옥, 「담정(薝庭) 김려(金鑢) 문학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1.

문화재청, 『匪懈堂瀟湘八景詩帖』, 문화재청, 2007.
수원박물관, 『書風萬里—조선서예 오백년』, 수원박물관, 2020.
한국국학진흥원, 『뜻이 담긴 현판 扁額』, 한국국학진흥원, 2011.

【Abstract】

A Study on Ye·seo (隸書, the plain square style calligraphy) of Inscriptions included in *Geumseokjipcheop*

Yoo, Ji-B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in Ye·seo (隸書: Chin. Li shu; the plain square style Calligraphy)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of the Joseon Dynasty by targeting the inscriptions included in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In *Geumseokjipcheop*, inscriptions belonging to the Kim Soo-jeung (金壽增) family account for the largest number of inscriptions engraved in Ye·seo. Among them, there are a number of Calligraphy following Kim Soo-jeung's Ye·seo style, including an inscription engraved by collecting letters written by Su-Jeung Kim. This indicates that he was a calligrapher who brought Ye·seo in the 17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After Kim Su-jeung, Kim Jin-gyu (金鎭圭) and Kim Yang-taek (金陽澤) and Kim Jin-sang (金鎭商) of the Gwangsan Kim clan were the famous calligraphers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with Ye·seo calligraphy. Among them, Kim Jin-sang's Ye·seo writings are the second most numerous after Kim Soo-jeung's in *Geumseokjipcheop*. He deviated from the Ye·seo style of Kim Soo-jeung and embraced Tang dynasty calligraphy, pioneering a new realm of Ye·seo calligraphy in the 18th century. In particular, Kim Yang-taek removed the transitional habits revealed in 17th century calligraphy and presented elegant Ye·seo calligraphy based on the Later Han's *Jojeonbi* (曹全碑). In that Kim Yang-taek was never mentioned in the history of Joseon calligraphy, his Ye·seo calligraphy is worth supplementing an important point in the history of calligraphy in the 18th century.

In addition, in the calligraphy of Nam Yu-yong (南有容), Song Mun-heum (宋文欽), and Lee In-sang (李麟祥), traces of mastering the inscriptions of the Later Han, such as *Haseungbi* (夏承碑) and *Eulyeongbi* (乙瑛碑), are found. This means that the reception

* Research Professor, Jeonju Univ.

of Han Dynasty inscriptions began in earnest in the middle of the 18th century. Among the best Ye·seo calligraphers included in *Geumseokjipcheop*, the final calligrapher is Lee Gwangsa (李匡師). He first established a model of Ye·seo style of the late Ha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by learning various inscriptions from the Han Dynasty, including *Yegibi* (禮器碑).

Keywords: Calligraphy (書藝), Ye·seo (隸書: Chin. Li shu; the plain square style Calligraphy), *Geumseokjipcheop* (金石集帖), Kim Soo-Jung (金壽增), Kim Jinsang (金鎭商), Kim Yang-taek (金陽澤).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2.

〈부록〉『金石集帖』 수록 예서비 목록

구분	순번	첩명	碑名	연도	書者
선초 예서	1	悲194	靑川府院君沈溫墓表	미상	李瑢
	2	海65	知敦寧府事姜碩德墓表	1461	姜希顔(추정)
	3	樹132	掌令金永銖墓碣銘	1503	洪彦國
	4	闕52	領議政盧守愼墓表	1601	許筬
宋浚吉 계열 예서	5	五151	贈承旨李濤墓表	1663	미상
	6	成27	黃山書院碑	1664	宋光弢
	7	垂109	全州府尹宋國澤墓表	1683	金錫達
	8	量192	烈婦安人高興柳氏墓表	미상	미상
	9	談178	杜門洞舊碑	1730	趙遠命
金壽增 계열 예서	10	戎119	執義權格墓碣銘	1646	金壽增
	11	珍58	淸陰金尙憲墓銘	1671	김수증
	12	罔177	石室書院廟庭碑	1672	김수증
	13	鞠155	金昌肅墓誌	1673	김수증
	14	形213	同樞金光燧墓碣	1674	김수증
	15	克205	坡州紫雲書院廟庭碑	1683	김수증
	16	克205	大司成松亭金泮墓表	1683	김수증
	17	草139	坡州牧使李挺岳墓碣銘	1684	김수증(추정)
	18	讚198	禮曹判書東江申翊全墓表	1684	김수증
	19	恃182	孝子堤川申孟慶旌閭碑	1685	김수증
	20	能174	丞柔武侯諸葛亮廟碑	1686	김수증
	21	量192	三賢閭碑	1689	김수증
	22	冬23	圃隱鄭先生神道碑銘	1696	김수증
	23	首116	校理洪萬衡墓碣銘	1699	김수증
	24	爲39	南寧君洪命耆神道碑銘	1700	김수증
	25	水44	仙源金尙容殉義碑	1700	김수증
	26	唐96	參判竹陰趙希逸神道碑銘	1700	김수증
	27	拱110	同副承旨金光燁墓碣銘	1701	김수증
	28	罪100	大司憲兪棨神道碑銘	1712	김수증
	29	虞94	咸鏡道觀察使柳永立墓表	1745	김수증(集字碑)
	30	女161	判書洪象漢配漁氏墓表	1756	김수증(집자비)
	31	及142	羅州牧使兪命健墓碣銘	1758	김수증(집자비)
	32	正216	承旨金濟謙墓表	1778	김수증(집자비)
	33	李59	文谷金壽恒墓表	1712	미상
	34	周101	工曹參判李慣墓表	1701	柳以復

구분	순번	첩명	碑名	연도	書者
金壽增 계열 예서	35	李59	左議政李端夏墓表	1704	미상
	36	罪100	谷雲金壽增墓表	1710	미상
	37	平111	黃海監司元墓石墓表	1710	미상
	38	呂30	同春堂宋先生墓表	1711	宋堯佐
	39	(終)231	豐山洪氏祔安東金省行墓表	1722	金濟謙
	40	岡48	光山府院君金國光墓表	1722	미상
	41	河67	蓮城君金定卿墓表	1726	金處訥
	42	賴141	參奉金聲大墓表	1727	미상
	43	禍225	雲坡大師義俊碑銘	1728	金時鼎
	44	惡227	長淵聖齋洞事蹟碑	1733	柳春元
金鎭圭 계열 예서	45	恃182	沃川滄洲書院廟庭碑	1697	金鎭圭
	46	水44	江華忠烈祠碑	1701	김진규
	47	宇5	文會書院碑(御筆賜額碑陰記)	1703	김진규
	48	傷160	兵使鄭鳳壽神道碑銘	1705	김진규
	49	文83	吏曹判書滄洲金益熙神道碑銘	1712	김진규
	50	毁159	遯菴鮮于浹廟碣	1713	김진규
	51	絲195	大司憲靑陽君沈義謙神道碑銘	1714	김진규
	52	字84	戶曹判書尹堦神道碑銘	1715	김진규
	53	發102	戶曹參判李命熙墓碣銘	1759	李(玉+厚)
	54	生42	忠臣李世華墓表	미상	미상
金鎭商 계열 예서	55	周101	刑曹參判金益勳神道碑銘	1716	金鎭商
	56	周101	兵曹參判金萬埰墓表	1716	김진상
	57	木140	金堤郡守李廷龍神道碑銘	1728	김진상
	58	羔199	欽差都司吳宗道紀績碑	1731	김진상
	59	短180	統制使崔崔慄事蹟碑	1736	김진상
	60	羌120	濯溪金馹孫墓碣銘	1737	김진상
	61	愛113	觀察使權悈墓碣銘	1739	김진상
	62	玄3	新羅王子遺墟碑	1739	김진상
	63	女161	監司李萬穆後配朴氏墓表	1740	김진상
	64	五151	贈參判洪受晉墓碣銘	1740	김진상
	65	五151	贈參判洪受晉墓表	미상	김진상
	66	推89	刑曹判書寤齋趙正萬神道碑銘	1741	김진상
	67	壹123	達城府院君徐宗悌神道碑銘	1741	김진상
	68	字84	吏曹判書農齋李翊墓表	1743	김진상
	69	罔177	洪州魯恩洞成三問遺墟碑	1744	김진상

구분	순번	첩명	碑名	연도	書者
金鎭商 계열 예서	70	及142	楊口縣監李簹墓表	1747	김진상
	71	女161	監司李萬稷季配金氏墓表	1748	김진상
	72	大150	進士韓道愈墓表	1748	김진상
	73	成27	忠賢書院事實幷尤菴宋先生追享記	1752	김진상
	74	使186	節度申砬淸邊碑	미상	김진상
	75	木140	司評成虎昌墓表	1721	미상
	76	毁159	監察趙觀國墓碣銘	1725	李時恒
	77	(무명)229	高麗右僕射洪毅墓表	1727	洪啓宇
	78	重62	睡谷李畬墓表	1728	미상
	79	(무명)229	高麗大師洪殷悅墓表	1730	洪啓宇
	80	染196	淸州西堤事蹟碑	1730	尹志大
	81	羌120	咸鏡道觀察使忘憂堂郭再祐墓表	1732	趙文命
	82	改172	淮陽府使趙愼墓表(新碑)	1734	趙顯命
	83	呂30	尤菴宋先生墓表	1736	김진상(추정)
	84	談178	石洲權權韠遺墟碑	1739	김진상(추정)
	85	乃85	晩退洪公兩朝恩褒碑(洪萬朝)	1742	洪重寅·洪重徵
	86	絲195	戶曹判書東溟金世濂墓表	1744	김진상(추정)
남인 예서 명필	87	人79	行禮曹判書韓汝溭墓碣銘	1704	韓德欽(추정)
	88	火75	左參贊淸川君韓準墓碑銘	1709	韓德欽
	89	改172	宰相韓脩墓表	미상	韓德欽(추정)
	90	淡68	開城留後韓雍墓表	1734	韓德厚
1750 년대 예서 명필	91	裳88	左參贊權㦗墓表	1750	權搢
	92	墨193	竹泉金鎭圭墓表	1753	金陽澤
	93	聽224	天然大師碑銘	1753	金陽澤
	94	常152	進士鄭穉墓碣銘	1747	宋文欽
	95	萬143	禁府都事宋炳遠墓表	1750	宋文欽
	96	景201	正郎楊士衡墓碣	1749	미상
	97	及142	槐山郡守李崇臣墓表	1758	李敏輔
	98	羊200	利川府使金有鉉墓表	1752	李麟祥
	99	鞠155	槐陰尹湜墓表	1755	李麟祥
	100	萬143	正郎尹扶墓表	미상	미상
	101	談178	丹陽羽化橋記事碑	1754	南有容
	102	羔199	左議政李台佐墓誌	1742	李匡師
	103	遐121	掌令鄭希登墓表	1746	李匡師
	104	羔199	右相鶴南鄭羽良墓誌	1754	李匡師
	105	往20	承文院正字金鍾純墓表	미상	兪漢芝(추정)